

# 외식기업 해외진출 전략 논의

##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 회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이하,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농식품부·산업부·외교부·aT·Kotra 등 관련부처·기관과 외식업계·학계 등에서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작년 4월에 구성됐다.

협의체는 수차례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7일에 인력양성, 정보제공, 금융·법률 지원, 홍보전략 등 5개 분야 29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외식기업 해

외진출 활성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9개 세부과제 중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절차 간소화 과제는 외국인등록번호 이외에 여권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외식기업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외식 또는 어학 전공 대학생들과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9월부터 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교육기관 공모를 진행중에 있다.

외식기업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과 애로사항을 해결을 위해 마련된 외식정보포털사이트 'The외식'(www.atfis.or.kr)은 6월 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외식관련 각종 통계·정부가관별 해외진출 지원사업 안내, 특허·세제 등 해외 진출 국가별·분야별 전문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상기 과제 이외의 나머지 과제들도 현재 정상추진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방안' 세

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간 위원장(연세대 양일선 교수)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외식업계의 추가 건의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식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해 주식회사 대대에프씨의 식재료 수출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또한 국내산 식재료의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창근 기자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300곳 선정

## 현판 수여, 50만 원 상당 포상 주어져

산림청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마을 중 성과가 뛰어난 300곳을 선정해 녹색마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사업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마을공동체의 자발적인 서약 등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선정된 우수마을에는 녹색마을 현판을 수여하고 50만 원 상당의 포상이 주어진다. 또한, 우수마을을 이장 34분을 추천받아 산림청장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는 전국 155백여 개 마을이 서약에 참여해 98.4%의 소각 근절 서약을 이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90개 마을이 추가된 159백여 마을이 서약에 동참해 96%에 해당하는 152백여 마을이 서약을 이행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사업으로 2013년 대비 2014년은 10%, 올해는 8% 소각산불이 감소하는 등 주민의 자발적 참



여를 통한 정책 성공 가능성을 보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에서는 올해 소각산불을 줄이기 위해 산불예방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최근 소각산불이 많았던 지역을 특별관리대상지역(전국 23개 시·군)으로 선정해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그 결과 특별관리대상지역 소각산불 발생률은 전년대비 65%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농·산촌 소각과 관련해 지난 2월 23일에는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불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

과의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체 산불원인 중 농·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율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각종 소각을 규제하던 것에서 마을단위 자발적 참여로 소각산불 감소라는 성과를 이루었다."라며, "국민들의 산불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관행적 소각을 근절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 건강보험 적용

## 복지부, 연내 가정 호스피스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2003년 암관리법제정)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酬價)가 개발·적용된 것으로, 말기 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보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해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올바르게 정착하는데 큰 고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나, 그간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13년 기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을 해도 임종에 임박해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통증, 구토, 호흡곤란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도와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암관리법」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8,000~23,000원 (총 진료비 280,000~370,000원/일, 간병급여 포함)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 적용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해 환자부담을 낮췄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하고,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역),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호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그간 사적 간병인이 환자·보호자와 사적 계약으로 특별한 관리 없이 24시간 병실에서 숙식하면서 환자를 돌보았다면,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3교대(8시간) 등 적정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 3명의 위생, 식사, 이동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면서 의사·간호사와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연계되며, 환자부담은 1일

4,000원(총 간병급여비 8만원/일)이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전문 간병(보호활동)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 중으로,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호스피스는 가정 호스피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 호스피스로 증상 조절 등이 안 될 경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관리한다.

미국·싱가포르를 가정 호스피스 위주의 호스피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대만은 가정 호스피스에서 시작해 입원형 호스피스까지 성공적으로 확대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복지사도 가정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 치료·돌본다.

필요 시 호스피스 병동 우선적으로 입원, 24시간 전화상담 등 환자중심 서비스이다.

김창근 기자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 국제세미나 국제 세미나 개최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의 일환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제4 국제세미나가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 주관으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정부가 7.14~8.2 추진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사업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구상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기조연설에서 한중 양국관계가 정열경열(政熱經熱)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고, 양 구상이 포용성과 개방성을 통해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연계 추진한다면 상호보완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수석은 일대일로 구상과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연계돼 추진된다면 동

북아 및 범태평양 협력과도 연계돼 지역적으로 보다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 구상의 연계는 앞으로 북한의 변화 수용시, 세계의 발전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할 것이다.

본사 사령

심찬섭 전남 총괄본부장

# 전국 지사 및 전국 기자

# 아나운서 · 리포터 · 시민기자 모집

**자격조건**

- 언론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으신 분

**지역**

- 전국 시군구

[www.sdatv.co.kr](http://www.sdatv.co.kr)

[www.신동아방송.com](http://www.신동아방송.com)

**문의**

신동아방송 · 에코환경일보 · 호텔관광레저신문 : 02) 846-9300

E-mail : sdatv@naver.com